

하이엔드 문화를 지향하는 PAD

글 양운정



2007년 프랑스의 유명 컬렉터 파트릭 페랭 Patrick Perrin이 설립한 PAD Pavilion of Art and Design는 런던과 파리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트, 디자인, 사진, 공예, 오브제 등 수집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선보이는 곳이다. 올해부터 스위스 제네바, 내년에는 모나코로 확장되어 런던과 파리를 포함해 무려 4개 도시에서 돌아가며 전시한다. 현재 경기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하이엔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준비한 PAD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가 아닌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자인 마이애미와 비슷한 컬렉션을 펼치지만 분위기는 훨씬 묵직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씻어내기 위해 2012년부터 35세 미만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PAD Prize'를 신설해 신선한 자극을 주는 작품들을 등장시켰다. 무엇보다 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이 매년 영국 디자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PAD는 진입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박람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컬렉터들이 가장 애호하는 박람회인 건 확실하다.

홈페이지 www.pad-fairs.com

중동의 중심 베이루트 디자인 페어

글 양운정



레바논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유럽에서 인정받으며 빠르게 입소문을 탄 베이루트 디자인 페어 Beirut Design Fair는 아직 2회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현재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첫 회보다 참가자가 28% 증가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111명의 유럽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출품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자본력과 외부 디자인 인력으로 메종 & 오브제 파리와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를 모방하려는 두바이와 달리 현지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만으로도 강렬하고 개성 있는 박람회로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점이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신진 레바논 디자이너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스타일과 시장을 발견하고자 방문하는 유럽의 바이어들이 주를 이룬다. 아직 규모가 작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동에서 디자인 인프라가 잘 확립된 도시로 베이루트가 뽑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중동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행사다.

홈페이지 www.beirut-design-fair.com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6월 스위스 바젤에서 1년에 두 번 열리는 디자인 마이애미 Design Miami는 예술 애호가와 컬렉터를 타깃으로 한 아트퍼니처와 조명, 오브제가 주를 이룬다. 지난 6월 바젤에서 열린 전시에는 13개국에서 선발된 46개 갤러리가 모였다. 전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후원하는 작가들의 컨템퍼러리 아트 피스부터 20세기 클래식 디자인을 대표하는 장 푸르베, 한스 웨그너 등의 작품까지 수집 가치가 있는 작업물의 향연이었다. 유명세와 규모, 화려함이 있는 행사다. 매회 바뀌는 디자인 앳 라지 Design at Large 관에는 작년에는 패션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큐레이터로 참여했고, 2018년에는 패션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의 큐레이팅으로 패션 브랜드 켈빈클라인과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시나가 협업한 암체어를 선보였다. 디자인 마이애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두 완판됐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홈페이지 miami2018.designmiami.com



컬렉터들이 모이는 자리 디자인 마이애미

글 양윤정

패션 직물 박람회인 프리미에르 비종 Première Vision Paris은 봄/여름, 가을/겨울로 진행되는 패션 시장의 일정에 맞춰 2월과 9월, 1년에 두 번 열린다. 패브릭과 가죽, 의상 부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패션 종사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며, 패브릭 중에서도 품질이 높고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주를 이룬다. 2월에는 특별히 '메종 데셉송 Maison d'Exceptions'이라는 이름의 특별관이 운영돼 공예 기술로 탄생된 오트 쿠튀르 패브릭과 부자재들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의 장인 기술과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둔 공방의 작업물들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분화된 공예 분야를 발견하고 국제적인 장인들을 만나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난 2월에는 25개의 공방이 참여했으며 지수, 염색, 매듭, 핸드메이드 조각단추 등 손을 사용한 특별한 기술이 뛰어난 공방이 이곳에 초대되었다. 노하우가 전부인 공방의 비밀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만 관람이 가능하다. 최근 유럽 공방들 속에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홈페이지 www.premierevision.com

패션계의 장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프리미에르 비종 파리

글 양윤정

